

새만금사업과 지역기업의 '상생'

도·새만금개발청·건설 등 공동 MOU 체결 송 지사 "확보된 국가예산 전북기업 몫으로"

전북도는 12일 새만금개발청,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과 함께 공동 MOU를 체결하고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 대상사업은 새만금남북도로 1단계사업(12.7km) 5,440억 규모로 현재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12일에 고시된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명시된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지역 자재 사용, 지역인력 고용 노력 또는 권장사항을 MOU를 통해 실행한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새만금사업에의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12년 새만금특별법 개정당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사문화 되었다가 전북도와 지역건설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7월12일

새만금개발청에서 고시를 통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지난 7월 처음으로 새만금신항 신규 2개 사업에 적용되었으며 금번 MOU를 체결하는 계기가 됐다.

MOU는 송하진 도지사,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대림산업 윤태섭 부사장, SK건설 정철 본부장이 공동 서명함으로써 체결됐다.

MOU에는 건설사는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가 하도급할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하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업체 우선 하도급 선정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 지역업체가 부실공사 또는 부정확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 지원한다는 MOU 주체들의 역할과 의무사항을 담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 자존의 시대를 맞아 2023 새만금 세계캠버리



전북도는 12일 새만금개발청,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과 함께 공동 MOU를 체결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중앙)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회 유치를 통해 새만금사업이 앞당겨 지고 2018년 새만금예산 또한 정부 SOC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보다 1,796억원이 증액된 8,947억원이 반영되었다"며, "이제는 애써 확

보한 예산이 전북 지역기업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전북도"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2년연속 여성가족부장관상

전북도는 12일, 서울 광화문 포스트타워에서 2017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역연대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가운데,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홍보, 피해자 지원 실무사례협의회, 안전사업 등 다양한 폭력예방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전라북도도와 전주시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에서는 전라북도지역의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 도·시군, 경찰청, 교육청,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시설 및 상담소 등의 30여개 유관기관들이 지

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정보교류, 협력 체계 구축 및 폭력예방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2017년에는 14개 시군 경찰 여성폭력 시설과의 간담회,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한 실무사례회의, 비의무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여성폭력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폭력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지원, 디지털성범죄 가정·성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등 도내 전 지역을 누비며 아동·여성·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예방활동을 펼쳐 왔다.

도 이숙이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정보교류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햇살 정부수매량 4.4만톤 시·도별 재배정

올해 생산한 햇살의 정부 수매량이 재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2017년산 시장격리곡 4만4351톤을 전남 등 6개 시·도에 재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각 시·도로부터 반납 및 재배정 희망물량을 조사한 결과, 반납 물량은 경기 2만4000톤, 강원 1만톤 등 총 4만4351톤에 달했다.

이는 올해 시장격리곡 총 매입규모 37만톤의 16.4% 수준으로, 농가의 정부수매 이외의 판로 확보로 인한 매입 포기에 따른 것이다.

시·도의 재배정 요청 물량은 5만 6800톤 수준으로, 농식품부는 요청물량, 생산량 대비 올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배정비율 등을 고려해 반

납물량을 재배정했다.

재배정 결과 ▲충북 614톤 ▲전북 9117톤 ▲전남 2만9710톤 ▲경북 1205톤 ▲경남 3494톤 ▲세종 211톤 등이 추가배정됐다. 각 시·도는 오는 22일

까지 신곡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가 매입된 물량까지 포함해 올해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최종 매입대금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예년의 경우 최종정산은 매입가격 확정(12월27일 예정) 이후 1월 중순경 시행됐으나, 올해는 농업인들의 연말 필요자금 수요를 고려해 연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정산액은 중간정산액(3만1/1등급)과 매입가격(10~12월 평균쌀값)의 차액에 대해 지급된다. /뉴시스

경기침체 속 기업이 쓴 수출신화

도, 다산기공·이원컴포텍 등 수출·투자유공 기업 8개사 포상

전북도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주관하는 '제20회 전북 수출 및 투자유공인의 날' 행사가 12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수출유공 기관장과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도는 수출 및 투자유치에 공이 많은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12월 둘째주에 이 행사를 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달 21일 '수출 및 투자유공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군 및 수출 유관기관장이 추천한 기업 17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6개 부문과 투자 2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다산기공 등 8개 기업을 2017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로 선정했다.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 최우수 분야 다산기공, 해외시장 다변화 분야 고려자연식품, 처음수출 분야 착한음식, 가공농산물 분야 전주신 환경영뚝배영농조합, 벤처기업 수출 우수 분야 코엔원 등 6개사가 선정됐다.

투자부문에서는 내국인투자 우수 '이원컴포텍'과 외국인투자 우수 '솔베이실리카코리아' 등 2개사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어려운 수출 환경에서도 수출 성과를 올린 기업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전북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출 신화를 써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라북도의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선박, 자동차 등 대기업의 실적 부진과 사드 보복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도 수출 1위 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33.8%로 증가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고, 러시아(111%), 인도네시아(49%), 베트남(22%)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약진하는 긍정적인 면도 확인할 수 있는 한해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시장 다변화 등 도내 기업의 수출 촉진과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해외마케팅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수출이 전북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결핵협회, 황현 도의장에 씬 증명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는 12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황현 의장(사진에게 '크리스마스 씬'을 증명했다.



이날 증정은 결핵운동의 상징인 '씬' 판매를 통해 모금과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황현 의장은 "결핵이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고 사망자 1위 국가인데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결핵을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씬 판매 모금액은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진료와 환자발견,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홍보에 사용되며 현재 도내에는 2016년 기준 1,281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일본의 3.2배, 미국보다 40배 많다. 결핵협회 전북지부는 내년 2월 말까지 그린 씬 1억170만여치, 크리스마스 씬 6천300만여치를 판매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